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9주년 추모식

追慕辭

2019. 5. 8.(수) 11:30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29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하시며
우리 민족을 이끌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셨으며,
한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주도하시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으며,
3·1운동 후에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올 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애국선열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애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훈’을 매개로
국민통합과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는데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한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 용 기